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규철 레 오 952-836-7117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이사야서 66:18-21	제2독서	히브리서 12:5-7, 11-13	복음	루카 13:22-30
--------	------	---------------	------	--------------------	----	-------------

◎말씀 “여보세요...주일미사가 몇시에 있나요?”

벌써 여기 본당에서 어느덧 여름을 세 번째 지내고 있습니다. 사제관 사무실에 머무르다 보면 평일에는 가끔, 주말에는 조금 빈번하게 전화벨이 울립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 특히 휴가철에는 더 자주 울리곤 합니다. 성당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이런 멘트를 들으시게 됩니다.

(따뜻한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찬미 예수님! 청송성당 미사 시간은 토요일 오전 10시, 주일 교중미사는... (이하 생략).” 아름답고 또렷하지만 다소 기계적인 음성이 나오는데, 세 번 반복합니다.

때로는 제가 직접 받아서 낯선 신자분에게 미사 시간을 말씀드릴 때도 있는데, 그분들은 꼭 특전미사나 교중미사에 참여하고 가실 때 “신부님, 며칠 전에 전화했었던 (누구)입니다.”라며 인사하시는데, 그럴 때 참 흐뭇하기도 하고 동시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맞춰 봉헌하는 미사이지만 누군가 함께 해 준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본당 교우들은 물론이요 멀리 휴양하러 와서도 미사를 찾는 분들한테서 특별함마저 느낍니다. 어찌보면 신자가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기 쉽지만, 요즘처럼 구성원들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젊은 세대들이 줄어드는 상황에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신자가 주일을 지키고 미사에 참여해야 하고

실생활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오늘날 그것은 강제화 될 수 없습니다. 설사 강제할 수 있다고 한들 어찌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 말씀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라고 하십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상황에 둔감해질 필요는 없지만, 유행이나 맹목적 경향에 빠져 신앙인들이 신앙인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될 위험과 유혹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앙에 대한 성실성과 우직함은 결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6개월의 긴 예비자 기간을 거치고 받게 된 세례의 은총을 낚은 유산이나 헛것으로 여기는 그런 작태야말로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교회는 오늘날에만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그것들과 마주해서 고심하며 인내합니다. 놀거리가 많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천주교인으로 살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삶의 특수함이나 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이들의 일상이며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어찌 구원의 문이 좁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늘 열려있고 가까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누군가를 첫째, 끝까지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늘 깨우치고 실천하는 이들과 어리석음이 있더라도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려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 내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 12:7)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8월23일(화)	연중 제21주간 화요일	저녁7시30분	주일헌금	\$ 1,165.00
			교무금	\$ 3,025.00
8월24일(수)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오전7시30분	성물방	\$ 60.00
			사회복지	\$ 130.00
8월25일(목)	연중 제21주간 목요일	저녁7시30분	성소후원	\$ 60.00
			기타수입	\$ 350.00
8월26일(금)	연중 제21주간 금요일	저녁7시30분	기타금융수입	\$ 5,744.50
8월27일(토)	성 모니카 기념일	저녁7시30분	합 계	\$10,534.50
8월28일(일)	연중 제22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3명 성인: 139명
교무금 봉헌자	강석만, 지영욱(7-12월) 이미자(5-12월) 김선식, 이대원(8-9월) 김응환(7-8월) 윤태욱(20.6-22.8월) 김주동, 이재덕, 전우성(8월) 김운태(9월)			

◎신앙생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올바른 영성체의 방법"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영적인 양식, 곧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먹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과 완전한 사랑의 일치를 이루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성체를 합당하게 받아 모시기 위해 우리는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올바르게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복재(空腹齋) :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순간 그분께 합당한 존경과 정성, 그리고 기쁨을 나타내고자 성체를 받아 모시기 1시간 전부터 물과 약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뜻하며, 공심재(空心齋)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고령자, 환자 그리고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행렬 : 영성체를 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주님께 경손을 드러내는 표시로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영성체 : 성체를 영할 때, 먼저 성체 앞에 깊은 절을 합니다. 이때 자신의 앞사람이 성체를 모실 때 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쳐 들고 성체가 모셔진 성합과의 거리에 유의하여 손을 내밀습니다.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체를 들어 보이면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성체를 받아들고 옆으로 몇 발 나와 오른손으로 성체를 집어 입에 모십니다. 성체를 영하고 난 후에는 사제나 감실, 제대에 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영성체는 혀 혹은 손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성체에 올바른 공경과 여러 가지 사목적인 이유로 대부분 손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 예를 들어 아기를 안고 있거나 손을 다쳤을 경우 입으로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영성체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면 침묵 중에 그리스도와 일치의 시간을 갖습니다.

양형영성체(兩形領聖體) :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와 피인 성혈 모두를 함께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사 중에 사제는 성체와 성혈을 모두 모시고 신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체만 영합니다. 그러나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의 원칙에 따라 빵의 형상으로 영성체를 하든 포도주의 형상으로 영성체를 하든 온전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모령성체(冒領聖體) : 스스로 대죄(중죄)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영성체를 하여 성체를 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도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 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1코린 11,27-2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은총의 상태에 머물러야 하기에 고해성사를 통해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성체 횡수 : 오랜 시간 동안 영성체는 하루 한 번으로 제한되었지만, 1983년 새 교회법은 같은 날 두 번 영성체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교회법, 제 917조)

“여러분이 영성체를 하지 않고, 미사에 참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적 친교를 이루지 못합니다. 참으로 유익한 행위인 이 영적 친교로써 하느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완덕의 길」, 35장 중에서

†.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김정필 라파엘, 윤태욱 안나, 원정은 카타리나 백정심 막달레나, 기은희 마리아, 김나미 로사 김옥륜 세실리아, 엄안드레아, 김숙자 수산나 안옥자 엘리사벳, 이규청 제노비아, 엄모니카 박모란 글라라, 이상일 마리아, 배미성 오틸리아 남필레 마리아, 고공자 벨라데타, 김화진 요안나 신용경 그레고리오, 김초지 마리아

◎기도 부탁하실 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 박울리아 .916-990-6531/박프란치스코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안윤석	생	마이클 메이오 건강회복	최선욱 제노베파
연	클래런스 링고 영혼	최재진 모니카	생	남성 제15차 꾸르실료 본당 참가자들	본당 꾸르실리스따
연	김성록 영혼	박지은 아델라	생	양경민 안드레아, 안성수 예로니모 영육건강	안강순 안젤라
연	박순규 유스티나 영혼	원승남 요셉			
연	유인희 마리아 영혼	류재순 마리안나	생	안상현 비오 영육건강	안강순 안젤라
연	박종구, 박혜란 영혼	임그라시아	생	임혜숙 그라시아 영육건강	이영숙 데레사
생	(생일) 이금희 아네스 영육건강	아빌라데레사회	생	류마리안나 영육건강	윤비비안나
생	(생일) 엄유경 유스티나 영육건강	아빌라데레사회	생	조유원, 요셉 영육건강	조유희 밀지다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본당 사목 회의

일시:28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부장급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장급이 참석.
 사목위원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2. 서북미 한인 꼬미시움 회합

일시:21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참석대상: 서북미 6개 구리아 간부 (Zoom) 및
 우리 본당 각 뽀레시디움 4간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3. 서중부 남성 제15차 꾸르실료 참가자를 위한
 신부님의 파견 축복(아가페) 안내

일시:23일(화) 저녁미사후 엘리사벳방
 참가자: 양경민 안드레아, 안성수 예로니모
 본당의 모든 꾸르실리스따들은 파견 축복식에
 참석하여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라며,
 꾸르실료 교육기간(25일~28일) 동안 참가자들을
 위하여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26일(금)저녁8시.성당
 저녁7시(찬미) 저녁7시30분(묵주기도)
 저녁8시(미사) 저녁8시30분(찬미)
 저녁8시45분(성시간 및 안수)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주세요

5. 교구2차 헌금

일시:21일(일) 모든미사
 목적:Church in Latin America

6. 성모신심미사 및 성시간

일시:9월3일(토) 오전10시30분 성당
 미사후 요셉회.안나회 모임이 있습니다.

7. 본당 구역장 회의

일시:9월4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모든 구역장 또는 차장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8. 추석 합동 위령미사 안내

일시:9월11일(일) 오전11시 성당
 조상님과 연옥영혼을 위하여 위령미사를 봉헌
 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바랍니다.(사무실/전례부)

9. 모임 및 활동

사회복지부:21일(일) 노라플레이스 음식봉사
 9월3일(토) 식재료준비 및 회합
 9월4일(일) 노숙자 음식봉사

10.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도네이션: \$100 (강석만 요셉-사회복지부)

<< 주일학교 >>

방학기간 중에도 어린이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 가정 봉성체 안내

일시:매월 마지막 목요일 신청:신부님

화답송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전례봉사	연중 제21주일(8월21일)	연중 제22주일(8월28일)	연중 제23주일(9월4일)	연중 제23주일(9월11일)
미사해설	김은영 폴리나	김진영 마르타	최금주 요안나	김은영 폴리나
복사	김병수 마리아	장현철 엘리야	장현철 엘리야	송돈희 요셉
헌금위원	셋별Pr.	천상의모후Pr.	천상의모후Pr.	셋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박봉준. 프란치스코살레시오(909-573-5322) E-Mail: 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 (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 (바오로)
916-361-2020 (Bradshaw)
916-361-0433 (Elk Grove)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 (호영베드로)
916-366-0123

전주곰탕 & BBQ

9345 La Rivera Dr.
Sacramento, CA 95826
(구 아시아마켓)
임복순 (골롬바)
916-382-9699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 (올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 (스테파노)
김옥기 (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서은미 부동산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 (안나) 916-600-1936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 #P)
최병엽 (바오로)
916-363-2345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 (클라라)
916-342-7072

메리서 부동산·용자·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 (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Allsafe Lock & Key2

9336 #B La Riviera Dr.
Sacramento, CA 95826
Sam Song
279-786-6186
allsafelocknkey2@gmail.com
www.allsafelockandkey.com

장 의사 W.F.Gormley & 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 된장. 도토리 국수. 참기름. 청국장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 (916-591-0179)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 (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Aeyon Lee RPh
(이애연 플로렌시아)
개인면담 (사전예약필요)
교중미사후 친교실 (격주)
916-276-1834
aeyon7511@gmail.com

교무금 봉헌 은행계좌 안내

입금은행: Wells Fargo
은행주소: 9500 Micron Ave Suite 130
예금주: Pastor of St Jeong-Hae Elizabeth
계좌번호 (Account#): 360 184 1897
교무금 등 각종 봉헌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신자의 의무사항입니다.